



*정말 이런 경기를 국가대표 선수들이 했을까 싶은 올림픽 종목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사실. 대부분 지나치게 위험하거나 황당해 폐지된 종목들이었다.

사진출처 | 이슈텔러 유튜브 화면캡처

평화의 상징 몰살한 '비둘기사격'·사람잡은 '인명구조 경기'

잔인하고 위험했던 초창기 올림픽

대포쏘기 종목, 멀쩡한 농가 박살내 폐지될 질러 끄는 소방경기, 너무 위험해 이웃 평화상징 비둘기 사격, 잔인해서 결국 퇴출상대 머리 피날때까지 때린 '싱글스틱' 엽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도 어느덧 후반전에 접어들었다.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그런데 올림픽 종목은 대외 때마다 일부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최근 한 유튜브가 올림픽 시즌을 맞아 올린 영상

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슈텔러가 제작한 이 영상은 지금은 볼 수 없는, 영구히 폐지된 올림픽 종목을 모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폐지사유가 흥미롭다.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엽기적이어서 사라져야 했던 것이다. 영상 속의 엽기종목들을 소개한다.

올림픽의 '종목 잔혹사'에서 제왕(?)의 자리는 응당 1900년 제2회 파리 올림픽에 돌아가야 마땅할 것이다. 이 해 올림픽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한 종목들이 대거 채택되었다가 대거 폐지되었던 것이다.

'대포 발사 종목(캐논슈팅)'도 그 중 하나이다. 대포를 쏘 거리와 정확성을 재는 경기였지만 잘못

손 포탄이 멀쩡한 농가를 박살내는 바람에 폐지됐다.

'소방경기'는 일부러 불을 지른 후 마차에 물을 싣고 와서 빨리 물을 끄는 위험천만한 경기였다. 당연히 1회 만에 사라졌다.

'푸들털깎기'도 있었다. 제한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은 푸들의 털을 깎느냐를 겨루는 종목이었는데 프랑스의 시골에 사는 여성 농사꾼이 2시간 동안 17마리의 푸들 털을 깎아 우승했다.

'엽기구 레이싱'과 '연날리기' 종목도 있었다. '엽기구 레이싱'은 띠오르기, 말라기 등을 평가하는 종목이었는데 '지루하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말았다. '연날리기'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돌풍

이 불어 중단되었다고 한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사격'은 살아있는 비둘기를 날려 보낸 뒤 총으로 쏘는 잔인한 종목이었다. 파리 올림픽에서 희생된 비둘기만 300마리. 비난 여론으로 역시 사라졌다.

'인명구조' 경기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후 심폐소생술까지 실시하는 종목이었다. 문제는 사람을 물에 일부러 빠뜨린 뒤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기 도중 실제 의사가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영구퇴출됐다.

올림픽 사상 최악의 엽기적인 올림픽으로 기억될 파리 올림픽 외에도 비슷한 이유로 폐지된 종목들이 있었다.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처음 선보인 '싱글스틱'도 그중 하나이다. 펜싱의 세부종목 중 하나로 두 명의 선수가 목검을 들고 마주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는 경기였다. 상대방 머리에서 피가 나면 이기는 것이 틀림없었고,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1회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1912년 스웨덴을 올림픽에서는 '권총 결투' 종목이 있었다. 물론 진짜로 사람끼리 총을 쏘는 것은 아니고 사람모양의 표적을 놓고 사격을 했다. 특이한 점은 표적 위에 당시 유행하던 프록코트를 입혀놓고 목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었다. 당연히 폐지되었으며 이유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양형모 기자 rani@donga.com

폐막식 연출은 장유정·장이머우 '한·중 감독 콜라보'

양국 영화감독이 꾸밀 피날레 무대는?

한국, 전통과 현대 융화된 어울림 무대 차기 개최국 중국, '베이징 8분' 피날레

메시지와 감동이 확실한 개막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한 관심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이제 폐막식에 달렸다.

25일 오후 8시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폐막식의 구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지만 무대를 연출하는 이들의 면면에서 어렵직자다 가능하다. 무엇보다 폐막식을 꾸미는 양대 축이 한국과 중국의 영화감독들이라는 사실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연출은 장유정 감독이 맡는다. 국내서 유일하게 영화감독과 뮤지컬 연출을 동시에 하는 인물. 지난해 개봉한 마동석 주연의 영화 '부러더'의 연출자이자 공유가 출연한 '김종욱 찾기'의 감독이기도 하다.

영화와 뮤지컬을 넘나드는 연출자답게 이번 폐막식은 올림픽을 마무리하는 의미와 함께 새



장유정 감독 | 장이머우 감독

로운 출발을 알리고, 한류로 대표되는 대중문화까지 세계에 소개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그룹 엑소와 씨엘 등 대표적인 한류 아이돌 스타의 참여가 확정된 사실도 이런 예측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장유정 감독은 "폐막식은 치열한 경쟁을 내려놓고 함께 흥겹게 늘 수 있는 축제의 장이자,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는 어울림의 무대로 꾸밀 계획"이라며 "유니버설 형식으로 음악, 춤, 미술, 영상을 통해 전통과 현대 문화를 그려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막식에서는 다음 개최지인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을 소개하는 공연도 펼쳐진다. 이 공연을 이끄는 책임은 중국의 거장으로 통하는 장이머우 감독이 맡는다. '인생' '영웅' '집으로 가는 길' 등의 영화를 통해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감독은 이번 폐막식에서 '베이징 8분'이란 제목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이머우 감독은 이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을 맡고 올림픽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바 있다. 당시 그는 중국의 4대 발명품인 종이·활자·화약·나침반을 모티브로 중국의 문명을 소개하는 공연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8년엔 중국의 역사에 집중했지만 이번 폐막식에서는 중국의 '현재'를 조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폐막식 준비를 위해 평창에 머물고 있는 장이머우 감독은 최근 중국 CCTV와 인터뷰에서 "베이징 8분" 공연은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 중국인이 동계올림픽에 갖는 열정을 보이는 제목적"이라며 "첨단기술과 전통을 결합한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평창 SNS 세계가 주목한 피겨대표팀 감강찬의 스킵



alex_kambam "Life imitates art far more than art imitates life." - Oscar Wilde. Thank you @olympics @olympic for making this masterpiece and further nourishing this meme. #pyeongchang2018 #inception #평창 #sof

피겨 스케이팅 페어 종목 감강찬이 계속 반복해서 오륜기 선글라스를 벗는 영상을 올려 화제다. 이 영상은 지난 11일 피겨 팀 이벤트 민유라-김린의 쇼트 프로그램이 끝난 후 키스앤크라이존에서 오륜기 선글라스를 벗는 감강찬이 중계 화면에 포착되면서 만들어졌다. 해당 영상은 현재 10만8000여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사진출처 | 감강찬 인스타그램

이태리 가족의 명가 '베라펠레' 인증 벨트의 품질은 가족이 결정한다

'이태리 장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벨트는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션아이템이다. 벨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가족이다. 이태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드럽고도 질긴 가죽을 생산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이태리 장인들이 수세기를 거쳐 내려온 가죽공정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베라펠레'는 오로지 수작업 무도질로 가죽을 만드는 이탈리아의 전통공방들을 대표하는 협회다. 이 단체의 인증은 곧 '명품 가죽임'을 의미한다.

허리를 확실하게 잡아준다. '2축 이태리 통가족벨트'

중년이 될수록 좀 더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하지만 튀어나온 배 때문에 바지는 자신도 모르게 줄줄 흘러내린다. 2축 통가족 벨트는 일반적인 벨트와 달리 2개의 축을 가지고 있어 남성의 허리를 더 단단하게 잡아준다. 대부분 벨트가 두 개의 얇은 가죽을 합포하여 사용하지만, 2축 통가족 벨트는 가죽 자체를 통으로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고 강하다. 또한 2축 통가족 벨트는 이태리산 '베라펠레' 인증을 받은 '명품가죽'으로 오래 사용할수록 은은한 광택과 클래식한 맛이 살아난다. 중앙 라인에 새겨진 X자 문양은 구멍 하나하나를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빅사이즈 주문도 가능하다.

제품명 2축 이태리통가족 벨트 색상 브라운, 블랙 (천연가죽가공으로 스크래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불량이 아닙니다) 할인특가 1개 ₩138,000 → ₩69,000 2개 ₩133,000 (선물포장가능) 사이즈 110cm, 125cm 제품신청 1588-9440 쇼핑몰 www.dasim.co.kr 계좌번호 국민 065901-04-127347 (주)다심, 카드결제가능 (3-5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베라펠레 인증 'VERA PELLE'는 Genuine Leather(진짜 가죽)를 뜻하는 이태리어로, 이태리의 26개 공장의 장인들이 모여 만든 협회다. 200년 전통의 '식물성 태닝' 가죽을 국제시장에 홍보하고자 1994년에 설립되었다.